

붙임1. 방송 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

본 자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프로그램 제작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수칙

- ① 보건 당국과 방송사·제작사별 내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부서별 자체 매뉴얼을 점검, 보완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활동을 일상화하며,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 ③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의심환자 발생시에는 응급조치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추가 감염 방지조치를 즉시 실시하며, 직원 포함 MC, 작가 등 제작진 및 출연자 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 ④ 비상상황 발생시 방송사별 매뉴얼에 따라 방송 제작·송출시설 안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해둔 대체 근무자 및 제작시설을 활용하고 대응한다.
- ⑤ 감염병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방송사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이 방송 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보도취재시 출입처·취재 현장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며,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을 참고한다.

□ 교양, 오락등 프로그램 제작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며, 고위험 연령층, 해외촬영, 밀집공간촬영, 집단관객녹화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또는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되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프로그램의 탄력적 변형 및 제작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 코로나19의 예방 및 관리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일정, 제작비, 인력, 공간, 교육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협력제작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제작현장 관리를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사전 직원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제작

- 프로그램 회의 및 제작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대면 접촉을 하는 경우 제작진 인원수와 시간을 최소화한다.
 - 특히 프로그램 촬영과 녹화할 때에는 밀폐, 밀집, 밀접이 불가피한 작은 실내공간을 피해 큰 공간에서 진행하여 밀접접촉을 피하고, 가능한 한 환기가 용이한 곳을 선택하며, 제작진, 출연진, 관객등의 공간과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 시사, 회의 등 협업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온라인 협업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기획, 자료조사, 원고작성 등 개별 업무시에는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한다.
- 외부인원 출입이 잦거나 다수의 스태프와 대면접촉을 하는 제작진에게는 거리 두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또는 분리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물품이나 서류, 대본 등을 서로 공유하거나, 손잡이 등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표면을 수시로 소독한다.
- 프로그램 성격상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의 참여가 핵심적인 경우 촬영 및 녹화현장에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 방송제작시 취약계층이 참여하거나 인접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제작진 및 출연진을 사전교육하여 취약계층에게 격리공간과 독립적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보호자 참여 등을 조치하도록 노력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촬영 및 녹화계획이 사전에 마련될 수 있게 적절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촬영 및 녹화를 위해 외부로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을 피하며 개별 차량 승차 인원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 방송시점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출연자는 직접 출연을 지양하고 전화 연결, 원격영상 등을 활용해 방송에 참여한다.
- 야외 촬영은 관광지 및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 다중이 모이는 공개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지양한다. 다만 실내 및 야외 공개방송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연진, 관객간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단계별 지침을 준수한다.
- 편집 및 후반작업 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최소한의 필수인원만 참여하고, 충분한 시간차이를 두고 자체적인 환기·소독을 실시하여 사용하는 등 가장 강화된 수준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의심환자 대응 및 감염확산 방지

- 제작진 및 스태프가 확진자, 의심증상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방송사별 매뉴얼에 따라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자 자가격리 및 프로그램 제작의 연기·중단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출연진과 관객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받도록 안내한 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촬영/녹화 작업은 자제한다.

□ 보도 프로그램 제작

□ 취재 준비단계

- 보도 취지와 성격에 따라 대면 취재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화상 인터뷰 등 다양한 비대면 취재 방안을 고려한다.
- 방송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취재진은 보호 장비를 갖추어 취재에 임해야 한다.
- 취재 현장에서 사용할 손 소독제, 여분 마스크 등 장비를 미리 준비한다.

□ 현장 취재단계

- 정부기관의 온라인 브리핑 등 비대면 공보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취재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며, 의료현장 취재 등 감염위험 높은 상황일 경우는 방호복 등 추가 보호 장구를 사용한다.
- 취재 장소 이용 전후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손이 닿는 표면을 소독한다.
- 취재원과의 근거리 대화 등 밀접접촉은 가급적 자제하며, 접촉시각, 접촉 방법,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감염위험 등 현장상황을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고, 취재 현장에서 감염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 회사 복귀 여부를 미리 협의한다.

□ 제작단계

- 비대면 제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영상편집과 CG제작 요청 기능 등 원격제작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 내부 제작시 필수업무 외에 불필요한 인력의 접촉과 방문을 최소화하고, 취재원이 불가피하게 회사를 방문할 경우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을 안내하고 방문기록과 동선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 취재에 사용한 장비와 장구류는 정비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디오 더빙룸 등 감염에 취약한 밀폐시설은 환기와 소독을 강화한다.

붙임2.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 제작현장의 책임자 및 관리자(방송사, 제작사 등)의 방역 수칙과 종사자(출연자·스태프 등)의 행동수칙을 제시하며,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자·관리자의 방역수칙

【의무사항】

- 방청객 등 청중이 모이는 것은 모임·행사에 해당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기준 준수
(‘20.12.1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모임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 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권고사항】

①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방송 제작현장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 방역관리자는 △방송 제작 종사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매 회차 시 방송 제작현장 자체점검표 작성,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하기

* 시설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병원)

②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방송 제작 종사자 대상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 교육 실시하기
- 방송 제작 종사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수행에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
-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방송 제작 현장 내 부착하거나 모바일로 안내하기

* 관련 홍보물은 첨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방송 제작현장 내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알콜 70% 이상))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하기
-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 곳곳에 비치하기
- 방송 제작현장 내 주요 공간(실내 스튜디오 등)의 청소, 소독 및 환기하기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하기(1일 2회 실시)
 - 방송 제작현장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하기

③ 방송 제작현장 출입·출근 시 종사자 관리

□ 방송 제작현장 출입 시 방역관리

- 방송 제작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하기
- 방송 제작 종사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하기(1일 2회 실시)
 - * 방송 제작 종사자 명부 작성(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 방송 제작현장에 이동하기 전 종사자 단체버스(스태프, 보조출연자 등), 연기자 개인 차량(매니저 등)에서는 체온 체크 및 증상 유무 확인 후에 출발시키기

□ 방송 제작현장 출근 시 방역관리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송 제작 종사자는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하기
- 해외 여행력 있는 방송 제작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금지하고 다른 방식(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권고하기
 - * (예시) 3월 6일 15:00 입국자는 3월 20일(D+14)까지 출근 금지
 - 출근을 하지 않는 동안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하기
- 방송 제작현장의 관리자는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하기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 외부 방문객 출입 규제 하기(사전 협의된 방문객 외에는 출입 금지)

④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 수칙

- 방송 제작 종사자 간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장 관객이 허용될 경우 전원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방역조치 철저히 하기

- 방송 제작현장 인근 식당(밥차 포함) 내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간대별 분산 운영하기
 - 좌석 간 투명 가림막 설치,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안내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하기
 -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식사 같이 먹지 않기
- 회식,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자제 권고하기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방송 제작현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기
-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하기
 - * 검사를 실시 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촬영/녹화 작업 자제하기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하기
- 출연진과 관객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제작진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선별진료소 이송 등 검사 절차 지원하기
 - * ▲고위험 연령층 등 취약계층, ▲동반자 없는 개인,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경우는 차량지원 검토

□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사실 확인 즉시 방송 제작 종사자에 통보 후 제작 일시중단 조치하기
- 상시 방송 제작 종사자 외에 함께 촬영했던 협력업체(보조출연 등) 및 외부 방문객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하기
-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자가격리 하기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하기

□ 종사자의 행동 수칙

【권고사항】

① 감염예방

- 마스크 착용 시 방송 제작현장에 출입 가능하며 근무 중에도 마스크 항상 쓰기
- 방송 제작현장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후 출입하고, 현장을 벗어난 후 복귀 시에도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출입하기
- 촬영 전일(혹은 당일)에 촬영현장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 사전 세팅이 필요한 파트는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 및 방역관리자와 세팅 일정에 대해 자세히 협의하기
- 컵, 접시 등 일회용 용품은 공동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한 것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등) 접촉 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한 휴지 등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 수칙 교육 참여하기

② 방송 제작현장 출입·출근 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1일 2회 실시) 및 이동동선 관리를 위한 방명록 작성에 협조하기
- 야외 및 세트 촬영장에 가능한 하나의 출입구를 이용하기
- 방송 제작현장에 이동하기 전 종사자 단체버스(스태프, 보조출연자 등), 연기자 개인 차량(매니저 등)에서는 체온 체크 및 증상 유무 확인 후에 출발하기
- 방송 제작현장에 도착하면 체온 체크 후 고열 증상(37.5°C 이상)이 없을 시 제작현장 출입이 가능함으로, 고열 증상이 있을 시 바로 귀가하기
- 의심증상이 있으면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팀·파트장은 방역관리자에게 보고)에게 공유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면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팀·파트장은 방역관리자에게 보고)에게 공유하기
- 최근 14일 이내 접촉자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있으면 바로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팀·파트장은 방역관리자에게 보고)에게 공유하기
- 최근 14일 이내 본인이 해외 방문을 했거나, 해외 방문자와 접촉한 자는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팀·파트장은 방역관리자에게 보고)에게 공유하기
- 매 회차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송 제작현장 자체 점검표」를 작성함으로, 점검표 작성과 관련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협조하기

③ 생활 속 거리 두기

- 방송 제작 종사자 간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방송 제작현장 인근 식당(밥차 포함) 내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간대별 분산하여 식사하기(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일시 사용 금지하기
- 방송 제작현장 근무 종료 후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하고, 개인 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철저히 지키기
-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외부 방문객의 제작현장 방문은 엄격히 제한하기
- 외부 방문객의 제작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출연자와 스태프 등은 사전에 제작팀 혹은 각 파트장(팀·파트장은 방역관리자에게 보고)과 협의하기

④ 유증상 시(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 발생)

-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기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

붙임3. 방송 촬영현장 자체 점검표 항목

방송 촬영현장 자체 점검표 항목	
대비 계획	○ 현장 내 감염대비·대응 계획 수립 여부 [필수사항]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관리 대책 * 보조 출연자 및 외부 방문자 포함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대비 관리대책 등 ○ 업무를 수행할 전담자 지정 여부
현장 위생 관리	○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 * 중점 관리 시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다수 이용 시설 * 분장차량, 모니터룸, 밥차 식사장소 등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 ○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구비 여부 ○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비치 ○ (실내촬영 시) 주기적 환기 실시 여부 * 창문, 문 개방 등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실시 ○ 촬영현장 밀집도 관리 여부 * 테이블 간격 조정, 좌석 한 칸 띄기, 흡연실 등에 간격 표시, 안내문 부착 등
개인 위생 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등 스태프 및 출연자 교육 실시 여부 * 보조출연자, 외부 방문객 포함 ○ 촬영현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실천방안(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안내 여부 *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부착 여부 등
감염 확산 방지	○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스태프 및 출연자가 있는지 여부 ○ (해외에서 입국한 스태프 및 출연자가 있다면)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여부
기타	○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스태프 및 출연자, 외부 방문객 포함),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 또는 촬영현장 방문 여부
방역관리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붙임4.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착용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①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❶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❷ 건강취약계층, ❸ 기저질환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 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 기저질환자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 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버린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면(천) 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③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 실외에서는 ❶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❷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권장	
생활 방역 상황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밀폐, 밀집, 많은 대화로 비말생성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			

④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중 “예외 상황” 참고

⑤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상황

-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붙임5.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환경소독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환경 소독 >

1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감염성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방수성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다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서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닦고 1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1,000ml에 5%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20ml를 붓고(예, 락스 2 뚜껑) 냉수를 생수통에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습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
- 소독을 마친 후 충분히 환기시키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 가정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사용하는 장난감 등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의 입과 손에 소독제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애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3 사무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표면과 공용물품은 매일 최소 1회 이상(가능한 자주)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소독 부위 예시】

-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승강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하세요.